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

안덕면 대평리 오연수, 김영희 해녀 인터뷰

해녀: 오연수(1955년생, 23세 때 결혼), 김영희(1957년생, 21살 때 결혼)

인터뷰 일자 : 2019. 06. 24.

인터뷰 : 좌혜경(Q로 기록),

해녀 : 오연수(A로 기록), 김영희(B로 기록)

Q : 고찌 앉아불민 막 섞어붐직 허다, 이디.

Q2 : 아, 예 그렇네요.

A : 혼자만 해나거들앙 가이허고

Q : 저기 이 바당에 구젱기가 많이 나는디가 어디꽈?

A : 구제기 많이 나는 여는 양, 저, 우리 대국 바당, 대국바당 이름은 가운디 도렝이, 섯도렝이, 그디가 소라가 최고로 잘나와그네 옛날부터 금싸래기 바당이렌 헙니다게. 경허난 이제 저 바다에 소라 없는 거는 저 쪽에 절벽 앞이[1] 예날엔 막 많이 나나신디, 한전때문에, 한전때문에 뭔 한전 오염으로 성게도 마딱 죽어불곡, 소라도 엇고, 경핸 그자 우리 대국 바당만 주로 허는디, 이제 어저께 이 감태 남바우레도 동펜이레영 몬딱 골고루 골고루 거기 이십니다게. 경해그네 해녀덜 경해도 요새 소라 금취기간이라부난 소라 구월(9월)달부떠 해경허민 트민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구월(9월)달부떠 해도 우린 이 해녀 자치회에서가 시월(10월)달부떠 허겐 해긴에 시월(10월)달서 오월(5월)말일까지 경핸 오월(5월)말일딱 행 해긴에 유월(6월) 일일(1일)부턴 성게 허는 디 올린 성게가 작년 닮지 안허연 알 엇어부난 성게 빨리 시작 못허연, 못 핸에 유월(6월) 구일(9일)날부터 시작해부난 이제 제우 성게가 열흘쯤 했주게, 경허난 앞으로 칠월(7월) 구일(9일)까진 성게 작업 허곡, 그다음에 끝나민 아무것도 헐거 엇어기네 이제 문어나 호꼼 잡으레 데니곡, 보말이나 호꼼 잡고, 경허멍 허연, 전에는 십년(10년)전이만 해도 소라가 엄청 많이 나나신디, 이제는 점점 이제 환경 오염으로도 바다 오염으로도 소라도 벨로 많이 안나고, 성게도 그추룩 잘 안나고게, 작년ᄁᆞ지는 하영 난게마는. 경허난 이제 해녀덜 뭣사 허멍 살거산디 모르큰게.

Q : 소라 잡을때는 어느 정도 들어강 어떵 잡암수과? 어떵 붙엉

A : 소라 잡을 때는 소라는 이제 상군 있고, 이제 하군 잇어도[이서도] 상군덜은 훈 십오메다(15m)까지 들어가주게, 십오메다(15m)ᄁᆞ지 들어가고, 보통 칠팔메타(7,8m) 소라 잡을때는 조끔 밖에 나강 잡곡, 이 성게는 밖에 안 강 이 가에서 잡곡. 경해긴에 허난 아멩해도 소라는 밖에 나가곡, 금취기간 막았당 튼 때는 소라 좀 있곡, 매일 잡아불어가난 엇는 거주게, 소라도

Q : 소라는 어떤 데 많이들 붙어 이수과?

A : 소라는 여 우에[2] 이 절벡, 이런 시흥이 아니고 여 우에

Q : 요즘 성게 잡암고 있잖아 예, 이 성게는 아무데나 그냥 있는 거꽈?

A : 성게는 아무디나, 성게는 아무디나 잇어도[이서도] 염는디[3]가 잇곡, 염지 않는디가 잇어. 염는디는 성게도 자꾸 해가야 염는 따문, 안혀가민 줄곡, 해가민 염앙. 저, 박수 바당은

1) 앞에
2) 위에
3) 여무는 곳

한전때문에 오염됨덴 핸에 성게 아니해 본지가 한 십오년도 넘언, 안 가본지가.

Q : 그 소라가 알 쌀 때는 어떤식으로 알

A : 소라 알 쌀 때는, 이제 지금 알 쌈주 뭐. 오월(5월) 말까지 소라 잡앙 유월(6월)부떠 유월(6월) 일일(1일)부떠 막으난, 지금 소라가 막 알 싸는디 소라가 알 쌀때는 우에 올라오고, 이 여우에 나와긴에, 이 붉으스름 헌 물이 흘러나와, 경핸 오월(5월) 하옇든 말 되가민 소라가 망아리서부터 불긋불긋 헌 물이 흘쳐. 경허난 그것이 여우에서 알을 싸. 지금 막 알 쌌주 뭐 소라가.

Q : 그러면은 그 알을 싸 놔두면 언제쯤 요만큼 헌 새끼가 됨신고 예?

A : 소라는 어느 순간 조금헌거 됨신지 몰라, 지금 바다에 들엉 보민 잔잔헌 새끼덜이 막 보여. 에미덜은 큰 거는 밖에 나오고, 잔잔한 건 구멍에 다 잇어. 지금. 성게 파멍 보민 구멍에 다 있고. 큰 소라는 밖에 있곡, 작은 소라는 안에 있곡,

Q : 그 알 싸는 건 그 붉은 물이

A : 응, 붉으스름 헌 물이 소라에서 나와.

Q : 요즘 전복은 어떵 햄수과? 전복은

A : 전복은 아이고, 요새 성게 허멍 전복 바당에 뎅김사 햄주만은 이 자연산 전복이 막 힘들언 게, 막 힘들언, 막 힘들언에 별로 엇언 게. 경헌디 하나씩 가끔 하나씩 하나씩 텅 나오긴 허여.

Q : 그 해삼인 경우는 이제 다 잡아불었잖아 예

A : 해삼은 지금 엇어. 해삼은 이제, 해삼은 십일월(11월)달쯤 되샤, 겨울에만 추워야만 나오난 해삼은. 금년에는 소라도, 춤 성게 저 해삼도 엇언 게, 눈 안 와부난. 완전 해삼도 안 나완.

Q : 오연수 계장님,먼저 오연수 계장님 몇살부터 작업허고 뭐 이거 계장님 소개 좀 해줍서.

A : 한 열일곱술(17살)부터는 작업, 출가해녀 갔다와진거 닮수다. 출가해녀 막 어릴 때

Q : 열일곱살에 출가해녀 간 게, 물질 시작헌 거?

A : 예, 물질은 아니, 더 어릴때 부터 양, 옐세설때부터 막 배완, 국민학교 육학년때부터 막 뎅견

Q : 경핸 지금까지?

A : 이제까지 뎅견

Q : 출가물질은 어디?

A : 출가물질은 저, 강원도 신암, 강원도 신암 가오고, 또 열여답술(18살)엔 또 통영군 한산면 비진이(비진도) 갔다오고, 경허연.

Q : 경허연 몇살에 결혼허십디가?

A : 스물셋(23)에 결혼허연, 스물셋(23)에 결혼허연에

Q : 여기, 부군님은 여기?

A : 아방은 모슬포, 나는 여기 대평

Q : 근데 대평에서 사시멘?

A : 예게. 나가 물질허는 따문 어쩔수 엇이 왔주 뭐. 따라 왔주게.

Q : 거믄 올해 연세가 어떵 됨셔?

A : 나? 육십일곱(67)

Q : 육십일곱?

A : 한 사십 한 사십사오년 되실걸?

Q : 저기 아까 이엉 가께 예. 영희 언니가 말헙서예. 구젱기 잡는거에 대헌 거영 굴아봅서.

B : 구제기 잡는 건 이제 이 팔월 말까지는 금취기간이고, 구월 일일 되면은 잡는디, 그 땐는 이 구제기가 다 돌 아래에만 잇어 양. 돌 아래에만 잇이난 돌 고냥에 강 춪아긴에 잡아야 되고, 한 십일월달 되가민 그거가 밖으로 나와그네 감태 아래 나 앉주게. 감태 아래 나 앉으민 나 앉은 거 줍곡,

Q : 여기 바당에는 감태는 많으깡?

B : 예, 감태는 좀 이신 편. 처음 해경헐 때는 많이 잡는 사름덜은 한 오륙십키로(5~60kg), 경 안허민 이삼십키로(2~30kg), 요즘은 소라가 엇어부난 예, 경허고 이 잔[4] 것덜 선별허영 다시 바다에 집어 넣곡 허는 따문 칠센치(7cm) 이상만 허는 따문, 경 많이 못 잡읍니다 게.

Q : 여기 해녀는 몇 명 정도 햄수과? 어촌계장님

A : 우리 해녀가 막 많았단 지금, 이제는 나이가 드셔부는 따문 한 삼십칠명(37명) 쯤

Q : 여기 바당에서 충분히 작업 헐 수 이수과?

A : 예 충분히 작업 햅주게.

Q : 양이 많지 않으니까 이?

A : 응

Q : 문어는 어디서 잡을 수 잇어 마씸?

B : 문어도 이제 바당에 다니당 보민 우리 계장님 문어 잡는 선수난 문어도 자기 사는 그 집이 잇어 야? 집이 잇이민 그 집을 춪앙 다니멍 잡암수게

Q : 어떤디 문어가 잘 이수강?

A : 돌 구멍에

Q : 돌구멍에

A : 구멍에다가 구멍, 돌 밑에 있는 구멍에. 문어 구멍이 잇어. 문어 사는 구멍이

Q : 문어 사는 구멍 굴아봅서.

A : 문어 사는 구멍은 요 오족괴 가면은 가면은 괴 안에도 하고, 또 요 빌 앞이도 있고, 기금 창도 있고, 물터진 목도 있고, 물그럭은 웬만헌디 구멍 한 물그럭 구녕 한 삼십개(30개) 정도 뒤지면은 한 다섯개(5개) 정돈 잡아 와. 경허곤 또 장마때나 이 겨울에 겨울같은 때는 문어 구멍에 가면은 어쨌든 문어가 잇어.

Q : 거믄 매일 가도 그 구멍에 또 강 잇입니까?

A : 매일, 매일은 가도 재수가 좋을 땐 매일 가도 있는 디 경안허믄 혼 이삼일 이땅 가민 항상 잇어.

Q : 그 구멍이

A : 전복도 있는 디가 조금 있곡, 소라도 있는 디가 있곡, 문어도 그렇게.

Q : 전복은 어떤 디가 주로 잇우과?

A : 전복도 밖에 나가면은 이런 여 우에 나 앉으곡, 이런 옆에도 붙으곡, 이 대게 보면은 숫전복은 가에 순 돌 밑에, 순 돌밑에

Q : 그 전복헐 때 비창으로 어떵 잡아야 될거꽈?

A : 비창으로, 비창 엎엉 테지 말앙, 영 가르치지말앙 엎어기네 영 가르쳔에 영영영영 핸 테민 되주게. 전복 쿡허게 영 행 제쳐불민 전복 찔러불고

Q : 찔러불거난

---

4) 작은

A : 살짝 전복 엎어지민 살짝 요렇게 강 요렇게 요렇게 허면서 테야 되어.
Q : 엎으지 말고 바로 영 찔렁
B : 담판에 찔러야 거 한번 주왁주왁 허당보민 눈 곰아불민 찔르기 힘들어.
Q : 어느쪽으로 가긴에 허여?
B : 납작허게 붙으민 전복 이런 얄룬 바우로
Q : 아, 얄룬 바우로
A : 코 눈으로 허민 안돼
B : 코로 허면은 깨져불고
Q : 두꺼운데로가 아니고 얄룬데로
B : 될 수 잇이민 얄룬 바우로
A : 똥구망쪽으로 허면은 껍덕[5] 테져불고, 전복이. 허난 하옇든 옆치기로만
Q : 전복은 보통 몇년짜리덜 해야 먹을만 헌 거지?
A : 전복은 먹젠허민 오륙년(5,6년) 이상 넘어가사 좀 큰거 먹주
Q : 오륙년짜리
A : 응
Q : 전복은 어떵 알 낳고, 어떵헙니까?
A : 전복 산란기는 십일월달하고 십이월달
Q : 겨울에
A : 예, 경헌디 전복이 이 내장이 검은게 암거고 하얀게 숫거렌 헙디다. 전복 저 내장
Q : 전복 보믄 알지 안헙니까? 무사 숫전복, 암전복
A : 숫전복 암전복도 있는디
B : 알긴 아는디
A : 알 깔 때, 까는 과정은
Q : 아
B : 숫전복도 아니, 암전복도 아니, 마드리엔 헌 거 있주게. 마드리
Q : 마드리 큰 거 예?
B : 예
Q : 경해도 가격은 다 똑같지 안헙니까?
B : 예, 다 똑같애
A : 가격 똑같어.
Q : 아, 그 알을 쌓는데 하얀거를 싸느냐, 검은거를 싸는거에 따라 다르다.
A : 경헌디 하얀 건 숫거난 못 싸고 검은 건 암거난 싸주게 내장이.
B : 하얀 것이 암거아니?
A : 아니렌 아니렌. 하얀게 숫거렌. 우린 하얀거만 암거 줄 알아신디
Q : 거 영보믄 생긴 것이 두꺼운 게 숫전복,
A : 응, 납작헌거는 암전복
Q : 납작헌거는 암전복, 경해연에 해났잖아 예.
A : 그 때 일본 간 때 그거는 암전복, 그건 암전복
Q : 그다음에, 요즘 성게덜 잡암잖아 예. 성게는 어떤디들 많이 나와. 그 딘 막 백화해도 성게덜 많이 자란덴덜 헙디다.

---

5) 껍데기

A : 예
Q : 먹이가
A : 성게는, 성게는 백화현상이 있어도 성게는 살아. 성게는 저거 양, 첨 씨 안 뿌려도 자연 그대로 많이 나와.
B : 알 쌍 새끼 깨우난 게.
Q : 그것들이 알 싸가지고 예.
A : 지금 막 새끼 깨왐수다. 성게도.
B : 올해는 좀 늦게 염와부난 예 여물이. 늦게 염와부난 호꼼 늦게 시작허연
Q : 음, 훍으긴 해수광?
B : 훍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Q : 여물이 늦어젼
B : 골르멍 훍은 거만 햄주
Q : 언제까지 해져야 될건디 늦어짐직허덴 연수계장님 말이
A : 칠월구일까지 허기로 해긴 해신디, 성게는 그 철 넘어불민 못허난. 딱 막아불거난.
Q : 막아불거난 예. 예날에 미역했던 얘기나 해줍서, 여기서.
A : 예날, 옛날 미역 헐 때는, 미역 헐 철 때는 해녀덜 전부 가긴에 고무옷도 안 입고, 속곳 입어그네, 학생덜 저 운동장에 모여그네 저, 이제 운동허듯이 그 매역 해경허젠 허민 미역 직허는 ᄉᆞ나이덜 잇어수다. 어른덜, 남자덜. 허면은 앉았다긴에 전부 시간 되면은 호각 불어. 호각 불민 막 달리고, 걸어가긴에 들어긴에 허는 디, 추워긴에 허민 얼마 허지도 못허고 나와. 나와긴에 옆에 몬 내불엉, 돌 우터레 뭐 널어뒁, 또 들곡, 옛날에는 낭불 해당긴에 거기서 불추멍 그추룩 허멍 해신디, 무슨 이제는 뭐 미역 해경은 안허곡, 미역 해경은 안허주게. 미역해그네 팔곡, 물미역으로 팔곡, 말령 팔곡 해도 옛날에 그추룩허멍 우리도 미역허채 막 해놔수다. 어멍덜이영 ᄀᆞ찌,
Q : 요즘도 날미역 행 풀암수과?
A : 날미역 이젠 엇고 게. 이제는 엇고
B : 이제는 엇어. 한 삼사월달에
Q : 삼사월달에. 거 해연 팔멘?
A : 응
Q : 그 다음에, 성게 구멍에 대해서, 성게는 어떵 알싸곡 허는 거라, 그거는 예?
B : 성게는 양, 이제 호꼼 이시민 알쌉큽디다게. 이제 막 고름 하나씩 피어 간. 그 알싸젠 허민 성게 영 파면은 이 우이로 흰 그 뭐 액이 나와.
A : 좍좍 나와
B : 나와그네 그거 알 흔번 바당 쎄나민 알 좍 싸불엉. 그 알이 도락도락 헙니다게.
Q : 알 싸불면는
B : 줄어져불어.
Q : 속이 다 줄어져불어
B : 성게 알맹이가 줄어들어
Q : 문어는 어떵해 마씸?
B : 문어도 이 여름에 알 싸난 그 문어는 알 싸민 죽어분덴 헙디다. 이 문어는
Q : 죽은거는 다 고기덜 튿어먹게
B : 생명이 알 싸면은 죽엄신고라, 구멍에 가민 알이 양, 이 바위에 다 드랑드랑 붙어. 문어알

Q : 문어는 몇키로씩 잡읍니까? 보통.
A : 문어 잡을때는 많이 잡고, 못 잡을때는 못 잡고게. 문어 잡을 때는 한 오륙키로씩 잡읍니다게. 많이 못잡아도, 조금 조금
Q : 많이 못잡아도 한 오륙키로?
B : 하나도 못잡는 사람도 있고게. 경헌디 우리 계장님은 문어잡는 선수난
Q : 경헌디 다 마을마다 예, 문어 잡는 선수들이 이십니다게.
B : 예, 다 있주게.
Q : 그 구멍을 다 알아가지고, 그 사름이 곳상군인디 하여튼간 젤 본 최고렌 헙디다. 경허난 머리가 좋아사, 거난 예.
B : 우리 계장님도 문어 잡는 선수 아니꽈?
Q : 거난, 거 오늘 처음 들은 거. 그 다음에 그 수압을 느끼거나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어떵 느끼거나 어떵헙니까?
A : 느가 말허라.
B : 수압은 이제 깊은 데 들어가면은 좀 자기가 좀 힘들다 헌 데는 수압이 안험직 허난 얕은 디로 올라옵니다게. 이제는 해녀덜이 나이도 들고 해가난 옛날처럼 더 깊은데 안감수다. 다 가에서만
Q : 수압 느껴지믄 그냥 피행 안가불고
B : 예
Q : 걸 몸으로 어떵 느껌수과?
B : 몸으로 자기가
A : 귀가 땡겨, 귀가
B : 뭘 알아지주게
A : 수압 쎄가민 귀가 막 땡겨
B : 귀가 막 댕겨불고, 귀도 아프곡 양
Q : 귀에 뭐 끼우기는 햄잖아
B : 우리는 귀에 끼우는 사람도 있고, 안끼우는
Q : 안끼우고?
B : 예, 우리는 안끼웁니다.
Q : 오연수 계장님은 어떵 햄수과?
A : 나도 안 끼와수다.
Q : 아니, 수압 쎄면은 어떤 쪽
A : 우리도 내려가당 귀 땡기믄 올라와불주게. 올라왔다기네 얕은디로, 다리 수술해난 후에는 막 멀리 가지지도 안헙니다게. 멀리도 안가. 다리수술 해난 후에는 아무래도 멀리 안 가.
Q : 계장님은 다리 수술은 언제 허십디가?
A : 한 십년(10년) 넘어수다게. 오십대(50대)에 허연에. 오십대(50대)에
Q : 바다에 다녀서 다리수술 헌 건 아닐거고 예?
A : 다 바다에 아니고, 밭에 밭에. 남의 밭에 품발이 허레 데니멍, 아파도 막 일허단 보난, 그게 막 물렁뼈 몬 뭉그러젼.
Q : 여기도 물살 쎈 때 말고 언제 작업을 허지?, 조금에서 여섯물이잖아 예?
A : 예, 조금부터 여섯물, 다섯물까지
B : 다섯물까지

Q : 어디 위치 정해져 잇우과? 어디

B : 가그네 의논허영, 앞바다에 앞바다 허곡, 또 요쪽 바다에 가곡, 저 절벽 밑에 가곡, 또 한전 옆에 가곡

A : 한전 앞이는 대게 보면은 한 서물날 너물날 그추룩 가고, 또 앞볼랭이렝이, 앞볼랭이 바당 같은데는 한 너물날 쯤에나 가고, 저 번네 바당 갔다 왕 한전 바당 갔다 왕, 또 절벽 바다에는 한 다섯물날쯤 가는디 겨울에는 막 어두워버리면은 호끔 일찍 댕겨도 갈수도 있곡, 그 나머지는 주로 앞바다에 대국 바다, 그디 들어기네 그디가 제일 물건도 많고 허난 거기 가

Q : 물에 들었당 그 항상 이거 작살 가졍 다념지 양?

A : 작살허는 사름

B : 작살허는 사름 멪사름 안됩니다. 한 서너이.

Q : 어떤식으로, 작살 가졍 다념지예

B : 예, 나는 작살 가졍 가.

Q : 그거 골아보십서

B : 작살 가졍 다니민 그, 고기도 사는 그 돌이 이수다게. 거민 그 고기 이서난 돌에 강 보민 이서. 경허민 이시민 백프로(100%) 쏩는 것도 아니, 털려먹어. 허허, 잘 쏩지 못허여.

Q : 어떤 고기들이 이섬수과?

B : 갯돔, 다금바리,

Q : 경허난 게, 비싼거나

B : 예, 이 객주리 같은거는 쉽곡 게

Q : 그거는 잘 쏘아 지쿠가?

B : 예, 그거는 잘 쏘아지곡

Q : 갯돔, 다금바리도 크지 안허여 예?

B : 큰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곡,

Q : 거난

B : 요즘은 고기도 엇우다.

Q : 고기도 엇고 이, 옛날엔 그 무슨 박복자 해녀분이 말씀하셔신가, 그 미시거 미끼 돈[6] 망사리

B : 아, 통바리?

Q : 미끼를 돌아메엉, 망사리에 돌아메엉

B : 아, 고기 옛날 고기 어렝이[7] 낚으는 거?

A : 으응

B : 그거는 소라영 다 금취허여기네, 이 물질 안 헐 때 여름에, 여름에 미끼허영 낚시허영, 어랭이덜 낚아당 먹곡 경해난. 요즘은 거 낚으는 사름도 엇우다.

Q : 아니, 테왁에다가 테왁낚시를 허던데

B : 게난 테왁에, 테왁 짚엉 가긴에 그 어랭이 낚시가 있주게. 술허여그네 강 이제 보말이나 무신거 미끼허여그네 강 허영 어랭이 그거 낚으곡

Q : 아, 보말에다가?

A : 보말이나 소라 잡아당 소라

---

6) 달아 맨

7) 어랭놀래기

B : 소라, 그 흰살 예. 흰살 허영 미끼허여그네
Q : 아까 해녀계장님 말씀 잘해주고, 그 조수에 따라서 어느 바당에 어떵 잡는 거 이거 경헌데 바당에 들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덜은 어떤것덜이 잇우과?
B : 수웨기[8] 나올때
Q : 수웨기?
B : 돌고래 돌고래
A : 돌고래 나올 때, 돌고래 나오면은 옛날 우리 할머니네영 어머니네 이야기 허는거 보난, 돌고래가 앞에 있는 고기를 막 해치면서 간덴. 자기보다 작은고기를 물채를 막 치면서, 이제 해치고 가면은 그 뒤에 큰 고래가 뒤따라기네 고기 먹젠, 줏어먹젠 뒤따른덴 마씸, 경허난 무서워기네 해녀덜이 그 물궤가 나오민 한쪽으로 막 몰리곡, 멀리 있당도 막 안터레 들어오기도 헙니다게.
Q : 그냥 뭐 잘 ᄀᆞ찌 허는 경우도 있던데
A : 게, 딴디는 ᄀᆞ찌 헌데 허는디 우리는 ᄀᆞ찐 못허여.
B : 우리는 겁 낭 못허여. 그거 나타나민 암튼 모여들어야,
A : 저 신도쪽더레는 그거영 같이 들어갔당 나왔당 하면서 한답디다. 근디, 한 해녀는 그거에 넋 나가지고 양, 물질 멫년 못했덴, 아판.
Q : 그 저기 모여들믄 뭐 이 수웨기들이 지나가불어
B : 지나가불엉 지나가불면은
Q : 해녀들은 한꺼번에... 모여든다면은
A : 비오젠 허면은 동쪽으로 가민 장항 덖으레 감젠 허곡, 서쪽으로 가민 장항 열레 감젠 허주게 옛날 할머니덜이. 경허는 따문 수웨기 오면은 “물 알로 물 알로” 허멍 “물 알로 물 알로” 허민 다들 누워기네 그 물 밑으로 가곡,
Q : 그것들이
A : 예, 수웨기가 하나두개도 아니고, 떼로 와 떼로 와. 엄청 많이 와.
Q : 정신엇이
A : 예, 엄청 와. 한 오십마리(50마리)도 더 와
B : 어떤 땐 피허지 못허영 수웨기 다치기도 헙니다게, 피허지 못허영
Q : 가만, 사람한테는 뭐
B : 사람한테 지장 엇인디 우리가 겁나주게, 서로 겁나. 수웨기도 겁나고 우리도 겁나고.
Q : 그거 한 몇미터까지 요즘 작업이 나감수과? 지금. 한 이십미터(20m)는 안가지 양?
A : 안헙니다.
B : 성게작업은 가에서 허는디 또 요즘은 바깟디 강 허긴 허염수다.
Q : 요즘 가장 무서웠던 것들이 수웨기? 해파리 같은 것덜은 엇우과?
B : 해파리도 있긴 잇인디 해파리는 피하기가 쉽고
A : 해파리는 그래도 괜찮은디
B : 해파리 이제 둥그런거 큰 거?
Q : 아니, 뭐 몸에 쏘는 해파리 같은 건
B : 그런거는 아직
Q : 이쪽은 그런 건 없고?
A : 예, 그런거는 아직, 칠팔월 나가민 그거 올라와갑니다.

---

8) 돌고래

Q : 거난, 칠팔월 되믄 작업을 안허는 게, 그거로구나.
A : 예, 칠팔월 나면은 그거 많이 나와
B : 물건 잡을 것도 엇고 게
A : 잡을 것도 엇어부난
Q : 그거 허면서 즐거웠던 일이나 재밌었던게 어떤 것들이우꽈?
B : 물건 하영 잡으민 재밌주 마 즐겁곡. 재주 좋앙 전복이라도 잡곡, 이제 문어도 많이 잡곡 허민
Q : 거믄 저기 물건 잡는 거 말고는 또, 같이 다니는 것도 재밌지 안해?
B : 같이 다니는 것도 재밌주게.
A : 맞수다게. 한시간 전에 가그네, 앚아그네 옷덜 챙기멍 수다 떨고, 이제 집에 해서 했던 얘기, 테레비 봤던 얘기, 앚아그네 허민 스트레스 몬 풀리곡, 웃으면서 다 모여앉아그네 옹기종기 모여 앉앙,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이라 마씸게. 우리가 해녀라는 보람이 그런 때 느끼는 거
Q : 같이들?
B : 예게, 아침에 한시간 전에 강
Q : 여기 어른덜은 다 그렇게
B : 예, 준비허멍 다
Q : 저기 오연수 계장님은 막 행정일 허는 것도 즐겁수과?
A : 행정일 허는 거는 어촌계원들 울어서[9] 하는 거라서 집이일 하더라가도 행정일 가게되민 뭐, 이런거 내불어 뒁 갑니다게. 일단 다 내버려두고
Q : 그 봉사를 허니까 어촌계장님이 허는거고, 몇년째우꽈?
A : 십년이우다. 십년째,
B : 잘헙니다게.
A : 삼선째
Q : 그 배 허시는 분들도 저기 어촌계장님이 다 관리해?
A : 배 허는 분덜도 이런 행정에서 사업같은 거 허는 거, 이런거 허는 거는 이 어촌계로 연락 오는 때문에, 어촌계로 연락이 오면은 어부회장이 잇우다게. 배 어부회장이 잇이민 어부회장한틸로 허그네 어부덜이 쓰게끔, 좋게끔, 해그네, 의논허영 허렌 허곡, 그추룩 인계허곡 경 헙니다게.
Q : 여기도 해녀학교 들어온 학생 이수과?
A : 예, 잇우다게.
Q : 몇명 이수과?
A : 해녀 학생이 우리 어촌계로 오명(5명) 들어와나신디 하나, 아니 사명(4명) 들어와나신디 한아이는 이렇게 인터뷰 허켄 허난 가불고, 또 한 아이는 작년에 들어온 아이는 최유림이렌 헌 아이는 중문이 남자 알멍 핸게 마는 양, 아맹해도 못험직 허덴 허멍 가불언. 게난 가네는 해녀증도 못만들어보고, 지금 또 법환이학교 사기(4기)생이 또 여기 육지에서 와도 여기완 거주해서 살고 남편은 배허고 허는 아이, 고상애라고, 사스, 저 사회생 첨 저 네번째 핸에 들어오고, 지금 오기(5기)생이 또로 들어강 햄심디 모르크다게, 또 들어오켄 햄신디
Q : 사기(4기)생은 험직도 허다 예. 남편은 배 허고

9) 위해서

A : 허기는 헌디
B : 여기 사난에 다념수다.
A : 우리 일기(1기)생이 박 저 누구 저 박해숙이가, 가이가 물질은 잘 헙니다. 깊은 디도 막 가고요,
Q : 게메, 아니, 지금 허염수과?
A : 예, 허는디 좀 요새 몸 안좋으난 육지 올라갔주게, 잠깐.
Q : 육지사름 예?
A : 육지사름인디
Q : 저번에 한번 왔던
A : 여기 와그네 집빌언 전세허연 살암수다
Q : 혼자?
A : 신랑도 있고
Q : 아, 신랑도 있고? 깊은 물속도 잘하고,
A : 깊은 물속도 잘허여
B : 깊은 디 잘 갑니다.
Q : 그 옛날에 결혼해서 물질작업 허고 아이덜 키웠던 얘기 한번 해봅서
A : 흐흥, 아이그
B : 아이덜 키웠던 얘기 무슨, 결혼을 너무 일찍 해부난에 고생했주 뭐. 너무 일찍. 물질은 열 일곱술(17살)에 시작허신디 그 때 스물하나(21)에 나가 결혼허연 애기 나부난 이 옛날에는 애기 나도 날때까지 바다에 다녀수다게. 바다에 다니당 이녁이 몸이 호꼼 이상해연 한 삼일 쉬어신디 경허연 애기 나나수다게.
A : 게, 열흘도 안 허여그네 물질허여. 몸조리도 안허여
B : 몸조리도 흔 열흘 허여신디 말아신디 물질
A : 옛날에는 몸조리 안허여, 물질허여.
Q : 물질허믄 몸이 더 좋아?
B : 에이, 다 벵신 되수게게.
A : 돈 해영 그 물질로 번게 옛날에는 이 직장 데니는 사름들 직장에 월급 받듯이 우리 해녀도 바다에가 우리우리 저기 터전이라 양 터전, 해녀덜 터전. 거기에서 물건해그네 생활유지 생활하고, 애기덜 공부 시키곡, 이제 허는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놀면은 그 소득이 안되는 때문에 일단 이녁 몸은 병신 되도 돈만 벌젠 그추룩 가는 거.
Q : 맞수다. 영희언니도 다 마찬가지고, 영희언닌 거믄 자식이 몇?
B : 난 서 오누이마씸
Q : 서 오누이?
B : 딸 둘, 아들 하나
Q : 아들 하나. 이제 다 결혼허곡 했지 양?
B : 으응
Q : 계장님은?
A : 난 아들 둘, 딸 하나. 아깐 큰 딸, 큰아들 여기, 저기 저건 족은 거 막둥이
Q : 좋은게, 다 셋씩 양?
A : 응
Q : 다 결혼들 허고 예? 경해도 물질허고, 아이들 잘 키우고게, 거믄 육지 출가물질 갈 땐 애

기는 누게가 볼 거꽈?
A : 애기 나기 전이, 처녀 때 갔주게
Q : 처녀 때만
B : 나는 못가봐수다, 출가물질.
Q : 아, 결혼후에는
A : 느 일본 안가완다?
Q : 결혼후에는 아예 안간다고
A : 일본에 물질허레 가와수게.
B : 일본 물질허레 두번 갔다 완
Q : 그건 일시적으로 간거 아니 양?
B : 예, 건 결혼헌 후에
Q : 결혼후에
A : 예, 후에
Q : 간 돈 법디과?
B : 간. 그 때는 비자가 십오일(15일) 밖에 안나오난 돈 얼마 못벌언 와수다게.
Q : 그렇지 예
B : 오래 살아시민 벌어지큽디다.